

식민지 조선의 상업·오락 공간,

종로 권상장(勸商場) 연구

: 1920년대를 중심으로

백두산*

<차례>

1. 서론
2. 대경성(大京城) 환상, '경성 낙천지(樂天地)': 북촌 개발과 권상장(勸商場) 건설
3. '여흥관람료 무료'와 박람회 기분: 권상장 오락관(娛樂館)의 흥행
4. 구극상설관 전환: 권상장 광무대 활동과 권상장 연예부(演藝部)의 재담공연
5. 결론을 대신하여: '텐스홀과 미인가', 권상장의 확장과 1930년대

<국문초록>

이 연구는 식민지 수도 경성의 종로 4정목 상업·오락공간이었던 종로 권상장(勸商場)의 공연 문화를 살펴보고, 20년대 박람회 문화의 확산과 권상장에서 벌어진 서민적 오락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22년 건설된 종로 권상장은 1920년대의 '대경성 계획' 및 종로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성 시가 정비 사업을 배경으로 건설되었다. 총독부 이전 즈음의 북촌 개발 계획과 지가 상승에 일본인 자본이 북촌에 진출하던 시기 건설된 권상장은, 일본에서 메이지 후기부터 건설된 일본의 권공장(勸工場) 문화를 모델로 하였다.

종로 권상장은 1915년의 조선물산공진회, 종로 야시(夜市)에 나타난 '관람/겉기'의 문화적 욕구를 지극하였다. 종로 4정목 지역은 배오개 시장(동대문시장) 등의 상업시설을 배경으로 조선인 유희인구가 많은 지역이었고 서커스단과 구극단체의 저렴한 가설무대 공연이 빈번하였다. 권상장 역시 개장 초기부터 '여흥관람료 무료'를 표방하며 영화와 연극을 위해 돈을 쓰기 주저했던 관객들에게 저렴한 여흥을 제공했다. 초기 '권상장 연예부'에서는 신파극과 기생 공연, 고래 전시, 대선술(大仙術) 공연 등 다종다양한 레파토리를 선보였는데, 권상장의 매력은 '대경성 환상'의 중심이었던 박람회를 연상시키는 오락의 문화체험에 있었다.

1928년 박승배의 광무대가 권상장 2층 공연장을 빌려 '권상장 광무대' 공연을 벌이면서 종로 권상장은 구극전용 상설관으로 전환한다. 권상장 광무대는 신파극 합동공연, 조선박람회 예비공연 등 신·구 절충형 예제를 통해 권상장 공간에 특화된 저렴한 오락과 흥행, 박람회의 기분을 제공하는

예목들을 공연하였다. 이 시기 권상장에서 인기를 얻었던 공연으로는 박춘재의 공연을 들 수 있다. 재담 공연은 1930년에 이르러 '권상장 연예부'의 중심 예제로 부상하는데, 박춘재 외 '지깡깡이', 김인호 등의 재담꾼들이 광고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담이 흥행장 공연에 정착되었던 과정을 볼 수 있다. 권상장과 종로 4정목과 같은 도시공간의 탄생은 재담이나 판소리 등 전통연희의 예제와 근대적 전시문화, 상품구경과 가벼운 여흥이 뒤섞인 20년대 도시의 여가, 오락문화의 풍경을 보여준다.

주제어: 권상장, 권공장, 종로, 북촌, 대경성, 종로 야시, 공진회, 조선박람회, 1920년대, 광무대, 박승배, 박춘재, 김인호, 재담

1. 서론

이 연구는 식민지 수도 경성의 상업·문화공간 종로 권상장(勸商場)을 대상으로, 1910년대 후반부터 벌어진 경성 도시공간의 변화와 권상장의 건설 과정, 권상장 내 흥행장의 공연활동을 통해 1920년대 종로 4정목(四丁目, 현재의 종로 5가 일대) 지역의 여가·오락문화를 조망하려는 기획이다. 종로 권상장은 1922년 종로 4정목에 서양식 2층 복합 상업 건물(1층은 상업공간, 2층은 전시·공연공간)로 신축되어 영업하다가, 1930년에 본 건물은 확장 개축(改築), 극장 건물은 본 건물과 분리·신축된 바 있다. '미나도좌(巷座)'라는 명칭으로 건축된 극장건물은 이름을 바꾸며 해방 이후까지 운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권상장이 개축되기 이전인 1922~1930년을 중심으로, 20년대 경성 도시계획과 권상장의 건설, 종로 권상장 오락관·연예부의 흥행, 광무대 임대 기간 공연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극장은 도시의 건축물이고 공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상업시설이며 오락과 여흥을 제공한다. 식민지 조선의 극장을 연구한다는 것은 위의 명제에 '(식민지 근대) 도시의 건축물, (조선인의) 공적 공간'과 같은, 근대성과 민족성으로 직조한 몇 가지의 선을 덧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10~20년대 극장문화에 대한 연구는 북촌(종로 중심)의 조선인 관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던 광무대, 연흥사, 단성사, 우미관,¹⁾ 조선극장²⁾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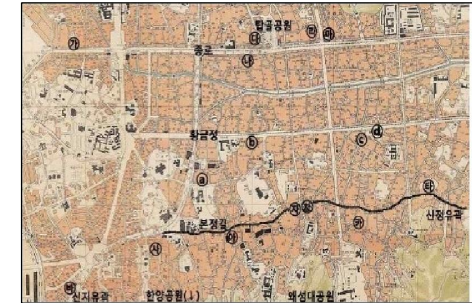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에 관한 연구와 흥행시장 및 단속에 관한 연구³⁾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의 연구들은 ‘근대’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줄이 덧대어져 형성된 논의의 틀, 곧 종족공간 또는 근대적 훈육기체로서의 극장과 그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에 주력하였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종로 권상장을 중심으로 1920년대 극장과 경성 도시공간의 재편 과정을 살펴보고, 권상장이 위치한 공간과 공연을 통해 1920년대 조선인 대중과 오락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종족공간이나 훈육기체로서의 극장에 대한 논의는 개별 극장이 지닌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을 간과하거나 극장에서 상연된 레파토리 및 공연단체 연구에 치중될 경우 근대극장이 지닌 일반적 성격 및 관람성의 재확인, 극단사(史)의 보조적 위치에 그칠 위험이 있다. 극장은 도시의 발전과 권력이 제공하는 스펙터클의 영향을 받으며, 한편으로 상품과 자본, 경제의 논리와 여기서 파생한 여가 및 오락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공간은 계급적인 불균질성을 지닌다.⁴⁾ 이같은 관점에서 1920년대 경성 중

심상업지역의 확대를 배경으로, 상품 판매와 경제적 이윤 추구라는 1차적 목적을 위하여 조선인 서민을 대상으로 오락과 여흥을 제공했던 종로 권상장의 건설과 종로 4정목 지역의 공연문화는 주목을 요한다.

식민 자본이 관여하면서 도 관객층은 조선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종로, 북촌의 극장가는 기존 연구에서도 중심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훈육과 통제, 오락과 일탈의 장면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던 장소가 바로 이 곳이 었기 때문이다. 또한 ‘종로’



[지도 1] 1927년 제작된 「京城市街圖」에 표기된 1910년대 극장의 위치 * 한상언(2012.9)

라는 지역적 중심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였던 극장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특수한 사정에도 기인한다. [지도 1]⁵⁾에서 볼 수 있듯,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초반까지 원각사(元角社)를 제외한 조선인 대상의 극장들은 종로 1, 2정목을 관통하는 대로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었다.⁶⁾

이와 함께 한국연극사 연구의 관점에서, 1920년대 ‘토월회 이후~극예술연구회 이전’ 공연문화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1910년대 혁신단을 위시한 조선 신파극의 인기로 신파극장을 찾았던 관객들은 1920년대 들어 ‘꿈처럼 사라지고’ 연극계는 전반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다. 민중극단, 토월회, 예술협회 등 20년대 전반기의 전문극단은 대부분 20년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였고, 이후로 토월회, 취성좌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을 뿐 꾸준히 유지된 전문극단은 거의 없었다. 1927

을 통해, 제국의 전시적 행사인 박람회 등에서부터 카페, 댄스홀, 카바레, 선술집 등의 여가공간이 계급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다룬다.

5) 한상언(2012), 앞의 논문, 410면.
6) ㉠ 우미관(1912~1950), ㉡ 연흥사(1907~1915) ㉢ 장안사(1908~1915) ㉣ 단성사(1907~). (한상언, 위의 논문, 411면)

1) 한국 극장사에 대한 서술은 박노홍, 『한국극장사』, 김의경·유인경 편, 『박노홍의 대중연예사 1』, 연극과 인간, 2008; 유민영, 『한국 근대극장 변천사』, 태학사, 1998; 이용남, 『해방전 조선영화 극장사 고찰』,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01; 우수진, 『한국 근대연극의 형성』, 푸른사상, 2011; 홍선영, 『1910년 전후 서울에서 활동한 일본인 연극과 극장』, 『일본문화학보』 제56호, 한국일본학회, 2003; 우수진, 『경성의 일본인 극장 변천사』, 『일본문화학보』 제43권, 한국일본문화학회, 2009; 한상언, 『활동사진기 조선영화 산업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0; 한상언, 『1910년대 경성의 극장과 극장문화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제53호, 한국영화학회, 2012; 이주영, 『광무대 연구』, 『한국연극학』 제48호, 한국연극학회, 2012.
2) 이승희, 『조선극장의 스펙터클과 극장의 정치경제학』, 『대동문화연구』 제7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3) 김려실, 『일제시기 영화제도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제41호, 한국영화학회, 2009; 이호걸, 『식민지 조선의 문화사업, 극장업』,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이승희, 『세금으로 본 흥행시장의 동태론』, 박현호 편, 『한국의 근대, 문화장의 동역학』, 소명출판, 2013; 문경연, 『한국 근대연극 형성과정의 풍속통제와 오락담론 고찰』, 『국어국문학』 제151호, 국어국문학회, 2009; 문경연, 『한국 근대 극장예술과 취미 담론』, 소명출판, 2012.
4) 데이비드 하비, 김병화 역, 『파리 모더니티』, 생각의 나무, 2010, 301~320면. 하비는 프랑스 파리 오스망 대로 건설에 의한 상품과 자본, 인력의 유통과 여가문화의 확산

년의 시점에서 이기세는 조선의 연극을 “연극다운 것은 조선인으로서는 모두 다 조선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고 하루아침의 꿈처럼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고 이같은 사태를 묘사한다. 이어서 이기세는 연극 부진의 원인으로 “하필이면 시네마의 발흥”을 언급한다.⁷⁾ 영화산업의 발전이 연극 흥행 부진의 원인이었다는 이기세의 언급은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기세의 회고에서 1920년대 흥행계에 대한 견해보다 더 주목을 요하는 것은 1920년대 중반 영화산업의 호황 이후 현장의 연극인들이 체감할 정도로 공연예술계의 판도가 변화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1920년대 공연예술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진 것인가. 1920년대 공연 문화에 대한 이기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보자.

이상과 같은 형편으로 현재는 광무대와 같은 ‘요세’식인 것이 약간씩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지만, 조선의 가수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나 문비(紋日)에 요리점에 초대해서 시킨다든지, 자기 집에 부르거나 하는 외에도 임시로 만든 ‘요세’식 무대도 있었다. 처음에 기술한 원각사 등이 경영난에 빠진 것도 몰이해와 같은 점이 있었겠지만, 당시 일등석 30전, 2등석 20전, 3등석 10전, 소인 5전 정도의 입장료를 받았던 것이 민정(民情)을 굽어볼 때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격이 높았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식사도 10전이 있으면 잘 먹을 수 있었고, 20전이면 하루에 쓰는 돈으론 충분했기 때문에 음식 외에 오락에 돈을 쓰지 않던 일반 사람들은 그만큼을 지불하고 시바이를 일부러 보러가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⁸⁾

이기세는 1920년대 중반 공연문화에 대하여 “광무대와 같은 ‘요세’식”인 공연과 “임시로 만든 ‘요세’식 무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언급한다.

7) 이기세, 『朝鮮に於ける演劇の變遷』, 『朝鮮及滿洲』, 1927.5. (번역은 김사량(서울대 공연예술협동과정))

8) 위의 글.

이와 함께 전문극장의 입장료가 당시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비싼 편이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흥미로운 것은 1920년대 공연예술의 명맥이 ‘요세식’ 공연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언급이다. 광무대 극장의 종족공간으로서의 기능, 전통연희 공연은 일본 ‘요세(寄席)식’ 공연 예제와는 분명 차이를 보인다.⁹⁾ 이기세가 사용한 ‘요세식’이라는 용어에는 광무대 등의 단체가 벌였던 전통연희 레퍼토리와 신파극부터 마술, 서커스 예제(철봉 등) 등 다양한 흥행물을 공연했던 방식을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요세식’ 무대와 서커스, 마술, 전통연희 레퍼토리를 공연하였던 가설무대는 1920년대 경성의 공연예술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작년 일 년 동안 경기도 내의 활동사진관과 및 기타 소극당(寄席) 등의 입장자 한사람의 총 수효는 이백십만 이천팔백 이십일인인데 흥행일수는 오천삼백륙십칠일이었었다 하며 그를 종류별로 보면 활동사진관 입장자가 백삼십일만 이천사백 육십륙인이요 연극장 입장자가 이십칠만 팔천이 백이십일인이 이섯스며 기타 소극당에 입장자가 십만 사천이백륙십륙인이었스며 기타 립시가설흥행당에 입장자가 사만 칠천팔백칠십팔인이었었다는데 그들의 입당을 오십천 평균으로 보아 계산하면 그 금액이 백만원 이라 하며 그 중에도 입당자가 가장 만흔 시설은 역시 흥행종류에 딸어 다른 바 연극은 사오월이 그중 만코 활동사진은 팔구십 석달이 만타는데 이를 보아도 괴후에 팔하 움직여지는 사람의 심정을 엿볼 수 잇겟다더라. (『昨年中 京畿道内の 觀劇料 百萬圓』, 『동아일보』, 1927.3.17.)

위의 기사에 의하면, 1926년 경기도 내 활동사진관과 연극장, 흥행장을 찾은 관람객의 총 수는 210만 2821인이며 그 중에서 활동사진관 입장자는 131만 2466인이다. 자료가 보여주는 관객수치의 윤곽만 살펴보더라도 영

9) 이주영, 앞의 글, 211~215면.

화관객은 연극장 입장자(27만 8221인)의 5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기세의 ‘시네마의 발흥’시대에 대한 회고는 바로 이같은 풍경을 지적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기타 소극장(寄席)’ 입장객(10만 4266인)과 ‘임시가설 흥행장’(4만 7878인)의 합계가 대략 15만 명에 이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료를 종합하였을 때, 1920년대 중반 이후 흥행장 무대와 ‘임시로 만든 무대’ 공연은 경성의 공연예술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탐구하는 1920년대 종로 권상장의 공연문화는 바로 이같은 공연문화의 흐름 위에 놓여 있다. 종로 권상장은 1915년의 조선물산공진회나 종로 야시(夜市)에 몰려들었던 조선인들이 걸음을 이어 찾을 수 있었던 도시의 여가와, 영화와 연극을 위해 돈을 쓰기 주저했던 관객들에게 저렴한 여흥을 제공했다. 이러한 권상장의 풍경은 1920년대 극장이 제 공하였던 식민지의 모더니티 체험과 대중오락의 일단을 보여준다.

2. 대경성(大京城) 환상, ‘경성 낙천지(樂天地)’ : 북촌 개발과 권상장(勸商場) 건설

이 장에서는 권상장 건설을 둘러싼 도시·문화사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1920년 초반의 경성에는 두 가지의 극장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다. 하나는 윤백남의 중앙극장(中央劇場) 인가이며,¹⁰⁾ 두 번째는 인사동의 조선극장(朝鮮劇場) 건설 계획이다. 술렁거리던 공연예술계의 분위기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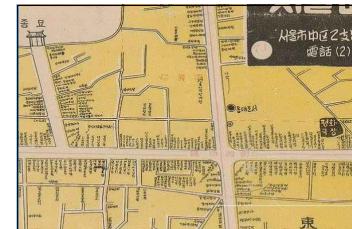
10) 윤백남은 1921년 3월 6일에 총독부에 극장건립 인가를 신청하고 그 해 8월 17일에 경성부 장사동 233번지에 중앙극장 건립을 인가받는다(『매일신보』, 1921.8.19). 그러나 결국 중앙극장 건설은 유산되었고, 윤백남은 조선극장의 낙성축하공연단체였던 ‘만파회’를 주도하게 된다(백두산, 『윤백남 희곡 연구~ 대중문예운동과의 관련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7, 56~57면).

달리 권상장 건설 계획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채 1922년 3월부터 보도되었다. 종로 권상장은 일본인 港谷久市¹¹⁾가 종로 4정목과 5정목의 경계와 가까운 대로변 부지에 건설하였다.¹²⁾ 권상장의 설립과정에는 두 가지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1920년대에 일어난 ‘대경성 계획’과 종로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성 시가정비 사업이고, 두 번째는 종로권상장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권공장(勸工場) 문화이다.

윤백남의 장사동 중앙극장, 황원균의 인사동 조선극장이 종로 1,2정목을 중심으로 한 종로 중심상권에 계획되었던 것과 달리, 애초에 상업시설로 구상되었던 권상장은 1920년대 경성의 상업구역 확대와 함께 새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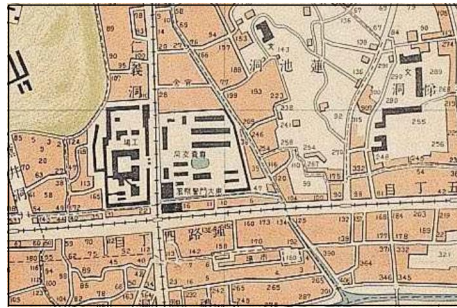
11) 港谷久市 : 1888년생. 『재조선내지인 신사명감』(1930)에서는 원적을 山口縣 大島郡 中家室村, 현주소를 京城府 本町 1丁目 23번지로 기록하고 있다. 약전에 의하면 성장해서 大阪으로 나와 모자상점에 들어갔으며, 1909년 3월 그만두고 조선으로 건너가 경성에서 모자상을 개업하였다. 파나마 모자를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으며, 1930년 현재 미나도야(みなと屋)를 경영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港谷久市』, 역사정보통합시스템 자료).

12) “종로 사정목 런지동어구(鐘路 四丁目 蓮池洞 八四)에 일전부터 일본인 항곡(港谷)이라는 사람이 큰 규모의 권상장(勸商場)을 건축하는 터인데 길과 개천을 막아서 집을 짓는다 하여 런지동 사는 일백칠십여호의 주민과 및 기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 종로 오정목 일부의 사람들이 모하여 반대운동을 일으키어(…후략) (연지동민의 반대운동)”, 『동아일보』, 1922.5.9) 기사에는 ‘八四번지’로 기록되어 있으나, 『大京城都市大觀』(和田重義, 朝鮮新聞社, 1937, 210면)에 의하면 “종로 4정목 1번지의 넓은 부지를 입수하여 1922년 제일극장을 경영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김은진, 『1917~1940년 종로 상업사회의 공간구조』, 한국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329면에서 재인용). 연지동민의 항의내용과 제일극장, 한일극장과 평화극장(1930년 건설되어 해방 이후까지 운영된 권상장 뒤편의 극장 항좌(港座)의 후신)의 위치를 참조할 때 권상장은 동대문경찰서 좌측 대로변, 연지동과 5정목 경계 부근 다리 옆 부지에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박진의 회고에서도 권상장의 위치가 확인된다. “지금의 종로 5가에 있는 한일극장이 미나도 좌란 것은 설명했다. 그 앞 전차길 쪽으로 지금은 신축건물이 썼지만 얼마 전까지도 구지레하고 너저분하던 목조 이층 건물로 수많은 상점이 잇달아 있던 그 건물이 권상장이었다.” (박진, 『세세년년』, 세손출판회사, 1991, 64면)



서울상계약도(1955) 종묘지역
(* 우측 검은색 건물 : '평화극장')

게 개발된 종로 4정목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1914년 3월 1일 조선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탄생한 경성부(京城府)는 식민지 조선 최대의 군사기지인 용산지역을 시역(市域) 내에 통합하여 시가지가 표주박형태를 띤



[지도 2] 京城市街圖, (1927)의 권상장 지역

독특한 이중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¹³⁾ 1904년 청일전쟁 이후 재조 일본인들은 본정(本町) 주변에 집단으로 거주하며 도로 개수 작업을 벌였고, 1910년 이후 경성거류민단과 상공인단체가 조선총독부의 도로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일본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1등부터 3등까지의 도로를 건설하였다.¹⁴⁾ 이것이 1기 치도사업(1911~1917)이며, 본정을 중심으로 경성의 주요 도로는 대부분 1등 도로에 포함되었다. 기본적으로 1기 치도사업은 황금정과 본정 등 일본인 상업 중심지역 연결망과 ‘광화문~황토현 광장~남대문~용산’을 남북으로 잇는 기축도로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¹⁵⁾

13)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10, 260면. 이후 경성의 도시정비에 대한 서술은 위의 책과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 일지사, 1996 참조

14) 1, 2, 3등 도로의 차이는 도로 폭 넓이와 관리책임의 차이이다, 1등 도로는 4간, 2등 도로는 3간, 3등 도로는 2간이었다(조병로, 식민지시기 도로정책과 재조일본인의 대응), 조병로 외, 『조선총독부의 교통정책과 도로건설』, 국학자료원, 2011, 20~27면. 종로 1가부터 6가까지 전체 폭원은 1912/1919년에 전 구간 15간(28m)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1926년에 4~6가까지는 12간(24m)로 축소되었고, 그나마 20년대 중반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1912년에 이미 종로 1~3가 구간의 폭원은 28~34m로 시구개정 계획 폭원을 상회하던 반면, 4가부터 6가까지는 20~24m로 개수가 필요하였으나 총독부는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이었던 이 지역 도로개수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심경미, 『20세기 종로의 도시계획과 도시조직 변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 석사, 2009, 36~40면).

남북중심 경성 시가개발 계획은 1920년대에 변화를 맞이한다. 조선총독부가 왜성대의 통감부 청사에서 경복궁 부지로 신축이전(1916~23년 공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맞물려, 1920년 한강 일대에 대홍수가 일어나자, 치수를 중심으로 한 ‘대경성(大京城) 개발론’이 부상한 것이다. 재조일본인들은 용산을 중심으로 한 경성 개발을 주장하였으나, 조선인 언론에서는 동서가로망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요구하였고 총독부 역시 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평원도시가 아닌 고지도시형 개발을 유력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북촌 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조선인 거주자들이 외곽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¹⁶⁾ 결국 재조일본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예산문제로 총독부의 동서개발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총독부 이전을 즈음하여 1920년대 종로의 상업지구는 확대되고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¹⁷⁾ 종로의 지가 상승은 일본인의 종로 진출을 부추겼고, 종로 1정목에서 4정목까지의 조선인 소유 토지는 1917년에 비해 1927년 약 10%정도 줄어들게 되었다.¹⁸⁾

바로 이 시기,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본정과 남대문통에 매장을 둔 ‘미나도 모자점’의 경영자 港谷久市는 권상장을 건축하여 종로 상권에 진출한다. “십수만원”의 자본금을 들여 건축한 종로 권상장은 780평 부지에

15) 전우용, 근대 종로의 상가와 상인, 서울학연구소, 『종로: 시간, 장소, 사람~20세기 서울변천사 연구 II』, 2002, 140면. 1910년대에 이같은 남북 중심 개발은 계속되었는데, 1912년 경성 시구정비 예정계획노선에서는 남대문통(남대문~조선은행~종로) 도로가 15칸(28m)으로 계획되는데 반해 종로구간(동대문~종로~광화문통)은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이규목·김한배, 서울 도시경관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학연구』 제2호, 서울학연구소, 1994, 23~24면).

16) 김백영, 1920년대 ‘대경성(大京城)계획’을 둘러싼 식민권력의 균열과 갈등, 공재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277~287면.

17) 경성 4정목의 경우, 1915년의 1평당 지가는 65원이었고 1918년에는 30~50원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1919년(50~120원)부터 1920년(60~160원), 1921년(60~150원), 1922년(80~200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간다. 1922년 종로 1정목의 지가는 250원~500원이고, 본정 1정목은 300원~450원이었다(靑柳綱太郎, 『大京城』, 朝鮮研究會, 1925, 75~83면).

18) 종로 4정목은 1917년 조선인 소유비율이 88.8%였으나 1927년에 이르러 78.54%로 감소한다(전우용, 앞의 글, 15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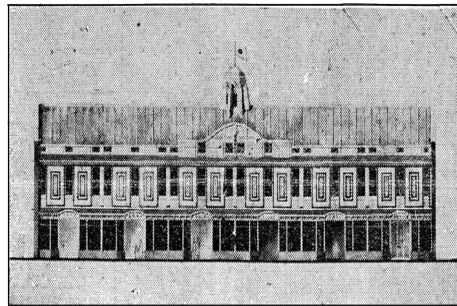
서양식 2층 건물로 구성되었고, 1층은 130여 개의 점포로, 2층은 다용도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광고에 의하면 2층의 용도는 전시관과 무료여흥장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都市의 美觀 ◎ 朝鮮의 京城에 內鮮融和的의 共榮과 互樂機關의 設備
 將來 朝鮮博覽會에 最히 適應 準備 ◎ 組織的百貨商店
 鐘路勸商場 賣店申込

본관의 계상(階上)에는 내외의 미술품 병(並) 상공업의 진로를 개척할 참고자료를 진열종람(縱覽)케 하며 우(又) 무료여흥장(無料餘興場)을 설(設)해야 활동사진 기타의 오락기관을 사시(四時)일반에게 관람케 하는 등 원(願)히 경제적 오락적으로 조직할 뿐 아니라 특히 사회적으로 생활의 안전과 위안을 여(與)할 최진(最珍) 최신의 차중(此種)의 상기관(商機關)은 아즉 일즉이 동양에서 기(其) 유래를 견(見)치 못한 전대미문의 파천황의 사업이며 연(然)하고도 상(常) 권상장의 위치는 문 듯 조선박람회(朝鮮博覽會)에 적응키 위하여 각방면에서 오락기관을 망라하여 잇는 조선유일 낙천지에 인접하는 즉 경성종로 사정목 조선인 상공업의 증추지에 실지하고 동대문시장과 상사(相俟)하여 은진(殷賑)을 극(極)하고 동아(東亞)의 일각에 신진의 대도시를 과(誇)할 조선수도에 일대미관을 정(呈)할 뿐 아니라(…후략)

(『매일신보』, 1922.3.10.)

“조선유일의 경성낙천지(樂天地)”를 표방한 권상장은 전시장과 여흥장의 용도를 겸할 수 있는 2층 공간을 마련하였는데, 매점 신입(申込)을 홍보하던 이 광고의 말미에 “일선융화적 / 식당, 대욕장(大浴場), 선인활동사



권상장광고(부분), 『동아일보』, 1922.3.10.

진관(鮮人活動寫眞館), 일본인향활동사진(日本人向活動寫眞), 극장(劇場)”이 있을 것임을 광고하며 2층에 활동사진 영업과 극장업을 중심으로 한 무료여흥장을 경영할 것임을 홍보했다. 그렇다면 오사카(大阪) 상인 港谷은 이같은 상업·문화공간 경영을 어떻게 생각해 냈을까? 종로권상장이 의도한 상업·오락공간의 모델은 일본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권공장(勸工場)¹⁹⁾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본에서 제정한 ‘권공장 관리규칙’(경찰령 12호, 1892년)에는 권공장을 ‘옥내에 통로를 설치, 상품을 진열하고 공중이 자유로이 출입하게 하며 그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일컫는다’고 규정한다.²⁰⁾ 1878년 도쿄의 에이라쿠초(永樂町)에 처음 건설된 권공장은 내국권업박람회(內國權業博覽會)에서 팔고 남은 물품들을 진열·판매하는 장소로 시작하였다. 일본 메이지, 다이쇼 시대에 번성한 권공장은 좁은 통로의 양쪽에 진열판매대를 놓고 임대 형태로 영업하는 소규모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통로는 건물 내를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쾌락원’을 강조했던 만큼, 정원이나 찻집과 같은 문화시설 이외에도 부가쿠(舞樂)나 노가쿠(能樂)와 같은 공연도 있었기에 메이지 초기 도시 유원지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였다.²¹⁾ 메이지 후기, 제국박물관(帝國博品館, 1899년 설립)이 운영되던 권공장 전성기에는

19) 권업장(勸業場)이라고도 한다. 권공장(勸工場)은 오사카 지역에서 권상장(勸商場)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하쓰다 토오루, 이태문 역, 『백화점: 도시문화의 근대』, 논형, 2003, 22~23면). 권공장에 대한 글은 위의 책과 아마구치 마사오, 오정환 역, 『쾌락의 정신사』, 한길사, 2005.

20) 하쓰다 토오루, 앞의 책, 52면. 최초의 권공장인 에이라쿠초 권공장(1878)에는 내국권업박람회를 연상시키는 전시 방식을 채용하며, 인공연못과 분수 등이 설치된 정원과 찻집, 휴게소 등을 설치하였다. 권공장은 이후 런던의 ‘바자’와 뉴욕의 ‘페어’와 같은 백화점 시설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휴게소, 그리고 그 밖의 편의를 갖춘 일종의 쾌락원” 시설로 발전하였다. 이후 도쿄를 중심으로 민간 자본이 투자한 아사쿠사(淺草) 권업장(1881), 교바시(京橋) 권업장(1882)이 건설되어 호황을 누렸고, 오사카에서는 우라야마(浦山) 권상장(1884)을 시작으로 권상장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도쿄의 권상장 건설은 다이쇼 시대에 이르러 하향세였지만 오사카의 경우 도쿄보다 더 오랫동안 번창하였다(위의 책, 52~79면).

21) 위의 책, 36~49면.

판매방식의 대중화를 위해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침이 변화하였고 권공장 건물이 변화기에 건설되었다.

일본에서 권공장은 상품과 인파, 여가를 즐기는 ‘유람’의 장소로 정착되었다. 메이지 후기 이후 ‘권공장 물건’은 ‘싼 물건’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서민적 대중오락의 장소로 여겨졌다. 권공장의 건축이 종탑과 시계탑 등 독특한 외관을 통해 지역의 고객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혹하는 방법을 채용하였다는 것 역시 특기할 만하다. 권공장은 악단의 연주와 분기별 대매출 등을 통해 항상 인파로 북적북적한 느낌을 연출하였는데, ‘인파를 뚫고 나가는’ 체험이야말로 메이지 시대 권공장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²²⁾

종로 권상장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였던 이른 시기의 복합 상업·오락시설로, 이미 1922년에 ‘조선의 디파트먼트 스토어’임을 광고하기도 하였다.²³⁾ 미쓰코시 경성 출장소(미쓰코시 오복점)가 백화점으로 승격되어 신축한 백화점 건물에서 영업하던 시기가 1930년 10월, 백화점식 잡화점을 표방하던 합명회사 계림상회의 시작이 1926년이었다는 점²⁴⁾을 고려할 때에 종로 권상장이 의도했던 ‘최첨단’을 자극하는 홍보 전략을 짐작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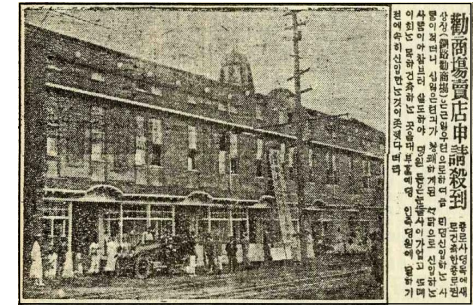
종로 권상장의 홍보에서는 문화적 ‘유람’과 ‘인파를 뚫고 나가는 체험’을 자극하고 있는데, 이를 선전하는 방식이 흥미롭다. 앞에서 인용한 권상장 광고(『매일신보』, 1922.3.1)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드러난다. 첫 번째는 권상장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책으로 극장과 전시공간, 활동사진관이 설치될 것이라는 광고를 통해 공연, 전시, 영화에 대한 문화적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서두에 나타난

22) 위의 책, 58~83면.

23) “理想的 一大 硯硯~트먼트 스토어~ 賣店 百三十軒 / 外觀의 美와 場内の 設備完全 / 不夜城 場內 電光 四萬燭”(『권상장광고』, 『매일신보』, 1922.5.27.)

24) 김병도·주영희, 『한국 백화점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46~54면; 허영란, 일제시기 서울의 ‘생활권적 상업’과 소비, 『이데진 외,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5, 534면.

“도시의 미관”과 “장래 조선 박람회 에 최(最)히 적응할 준비”라는 문구가 ‘근대적 도시’와 도시생활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둘은 일차적으로 권상장이 제공하는 근대적 문화체험에 대한 매혹적인 홍보문구로 읽힌다. “신진의 대도시”



권상장 매점신청 쇠도, 『매일신보』, 1922.6.13.

로 자랑할 “조선수도에 일대미관을” 제공한다는 구절은 ‘대경성 계획’으로 촉발되었던 식민지 종로의 중심지 지향의 욕구를 자극하였다. 권상장 건물 자체, 700여평의 부지에 서양식 2층 건물과 일장기가 휘날리는 중앙의 종탑으로 건축되어 있는 서양식 건물의 외용 역시 이를 웅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근대화된 조선과 그 조선의 중심지, 종로의 ‘대경성 환상’이라고 할 만한 이 환상은 ‘조선박람회에 적응’하겠다는 문구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왜 하필 ‘조선박람회’인가?

언급하였듯 일본 메이지 시대 권공장은 최초 건설 과정부터 전시물품, 전시방식에 이르기까지 박람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종로 권상장 개업을 기준으로, 조선박람회의 개최(1926.5.13)는 만 4년 후의 일이다. 이 광고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다가올 박람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보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박람회 문화’를 환기하고 있는 권상장의 홍보 방식과 그 의미일 것이다. 시정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를 시작으로 식민지 조선은 ‘불거리’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다. 공진회에서 벌어진 전통연희, 곡마단 공연, 디오라마 관, 무료 활동사진 등의 ‘여흥’은 물론이고, 그 여흥을 구경하러 찾아가는 이동 행렬 자체가 화려한 불거리였던 것이다.²⁵⁾ 기존 연구에서 빈번하게 언급하는 ‘스펙터클/관람’의 시각적 체험은 ‘가로(街路)를 걷는’ 행위와 함께였다. ‘관람/걷기’의 체험은

권상장의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진회 이후 ‘관람/걷기’의 실천은 1916년부터 벌어진 종로야시(夜市)의 호황으로 이어졌다.²⁶⁾ 1916년 경 시작되었던 종로 야시는 20년대부터 4월부터 10월 경까지 종로 1,2가를 중심으로 ‘중앙번영회’가 주도하는 중요 사업으로 자리잡는다.²⁷⁾ 야시를 관람하며 걷는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의 눈에 식민지 조선이 변화하는 징표로 보이기도 했다.²⁸⁾ 종로 권상장은 개장 이후 전깃불과 가로 정비를 통해 종로야시 권역을 종로 4정목 지역까지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권상장은 1922년 5월 1일 개업이 예정되었으나, 6월 10일에 일부 개장하였고, 29일에 모든 점포가 영업을 시작하였다.²⁹⁾ 광고 및 기사에 실려 있는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상장의 외관은 입구가 총 6개이며 지붕 부근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실내는 입구와 연결된 통로 양쪽

25) 문경연, 『한국 근대 극장예술과 취미담론』, 앞의 책, 181~186면.
 26) 「관중오만~종로야시에 기시식」, 『매일신보』, 1916.7.23. 종로 야시에 대한 연구는 문경연, 앞의 책, 185~186면; 손정목, 『II. 개항기·일제하의 산업·경제』, 종로구 편, 『종로구지(下)』, 1994, 278~281면.
 27) 손정목, 『II. 개항기·일제하의 산업·경제』, 앞의 글, 279~280면.
 28) 1922년 부임한 총독부 관료 有吉忠一은 종로의 변화를 야시의 성황으로 체감한다. “또 特別히 顯著한 變化를 認定하는 것은, 저 鐘路通의 夜市와 거기서 散步하는 사람들이라, 霑날에는 朝鮮사람이 그러케 모히어서 그러케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念頭에도 먹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런데 그 夜市에 散步하는 사람 中에는 손과 손을 마주잡고 情답게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内外를 만히 볼 수 잇스니, 要컨대 이것을 總括해 말하면, 愉快한 生活을 하는 所緣이라 하겠소. 그런데 그것은 勿論 慶賀할 現象이 안일 수가 업소.” 연제인지 總督이 파나마帽子에 훗쩍테기 옷을 입고, 夫人同伴으로 夜市에 散步하더라 하더니, 左右間 오사이 總督府 幹部間에 夜市집저거리는 風이 流行하는 模樣이다.” (일기자, 「실내출장소의 오후」, 『동명』 1권1호, 1922.9)
 29) 권상장은 4정목과 5정목 일대 하천에 매립을 통해 건물을 건축하여 인근 연지동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었다. 연지동과 종로 5정목의 대표들은 경성부윤에게 반대청원을 하였는데, 권상장이 건립되어 연지동과 주도로 사이에 이전부터 이용하였던 길이 없어질뿐더러 여름 장마로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5월까지 이어진 청원으로 대표단은 경성부윤을 면담하기도 하였으나, 경성부는 ‘실지조사’를 한 후 처분한다는 방침만을 내놓았다(연지동민의 반대운동, 『동아일보』, 1922.5.9; ‘부윤을 방문탄원’, 『동아일보』, 1922.5.12).

으로 소규모 상점들이 영업을 하는 구성이었을 것이다. 권상장의 장내에는 ‘불야성’을 이루는 4만축의 전깃불을 상설하였는데 이는 종로 권상장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각적 요소가 되었다.

그 배우개장이 한산하기 짝이 없을 때, 이 권상장이 섰다. 기다린 이층 집에 전기등이 휘황하고 아래층에는 각종 상점이 들어앉고, 2층은 탁 터서 무대와 객석을 만들어 연희장으로 썼다. (박진, 앞의 책, 64면)

야시는 가로변 조명시설의 설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같은 가로변 조명시설을 통해 문화생활의 시간대는 야간까지 확장된다. 권상장 입주상인과 배오개(동대문 구역)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동부번영회³⁰⁾의 첫 사업 역시 종로 4정목 지역에 ‘불야성’을 만들어 줄 전등을 가설하는 것이었다.³¹⁾ 1933년에 이르러 배오개 지역에 정식으로 야시가 설치되었고, 권상장은 종로 야시의 끝에 위치할 수 있었다.³²⁾

가로등과 4만축 전깃불, 상품 진열대와 가벼운 여흥이 있었던 종로 권상장은 191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 조선에 나타난 ‘박람회’와 ‘야시’의 감각, 곧 볼거리를 위해 끊임없이 걷는 문화를 살내 구역까지 확장시키며 ‘사람들이 북적이는’ 상업·오락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종로 권상장의 방

30) 경성 동부의 상인들은 권상장 건립을 기회로 경성 동부의 상권 발전을 위해 동부번영회를 조직한다(종로권상장개업식, 『동아일보』, 1922.3.22.).
 31) 종로사당목 즉 비오기 등지는 일반시민으로부터 비교적 등한히 여긴 썩문에 그곳의 발전은 참으로 더디었으나 항자부터 싱긴 권상장이 잇서 々 차차로 그곳은 번영이 되며 권상장 안은 미덥이 거위 다 칩어서 미일 모혀드는 스람과 물건 미미흔는데 불쇼 힐 리역이 잇서오는 바 그곳의 지주자 전부를 망라한 동부번영회(東部繁榮會)에서는 그곳 발전에 진력하던 중 권상장이 싱기였으므로 이 기회에 급속발전의 실현을 보도록 홀차로 (...중략...) 비오기 네거리에서부터 공업전문학교 드러가는 어구에서 일 빅오십축광의 던등을 단거리던쥬 삼십기를 길 좌우에 건설하야 캄캄하던 아티디에도 불야성을 만들 작정으로 당국에 교섭도 맞치였으므로 불원에 던등을 달기에 착수하리라더라 (이현의 대전등 ~ 동부번영회에서 비우기길 좌우로, 『매일신보』, 1922.8.5).
 32) 『동아일보』, 1933.3.17; 손정목, 『II. 개항기·일제하의 산업·경제』, 앞의 글, 281면; 『명물로서의 ‘야시’~여름과 종로와 야시』, 『동아일보』, 1938.7.9.

문객들은 기존의 극장과 상점이 지녔던 ‘실외/실내’의 구별보다 느슨한 마음으로 가로의 문화, ‘대경성 환상’의 기분을 즐길 수 있었다. 종로 권상장이 1910년대 실내극장과 다른 지점 역시 바로 이 같은 실내와 실외의 경계가 느슨해진 것, ‘걷기’의 문화 안에 포함된 공간이었다는 사실이다. 종로 권상장이 제공한 ‘여흥관람료 무료’의 흥행물 역시 박람회와 가로의 상품, 전시, 공연물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3. ‘여흥관람료 무료’와 박람회 기분 : 권상장 오락관(娛樂館)의 흥행

이 장에서는 1920년대 초반 권상장 2층 공연장 운영과 권상장 오락관의 흥행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1920년대 식민지 경성에서 무료로 볼 수 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앞서 이기세의 글에 의하면 20년대 극장의 입장료는 일등석 30전에서 삼등석 10전까지였다. 이기세는 이러한 입장료가 조선인들에게 비싼 것으로 인식되었다 서술하였다. 조선물산공진회(1915) 기사에서는 공진회장의 흥행물 입장료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관객의 나이와 객석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예관의 특등좌석은 30전부터, 삼등은 15전까지였다. 서커스(대곡마단)를 보기 위해서는 특등 50전에서 3등 10전까지의 관람료가 필요했다.³³⁾



『동아일보』, 1922.7.6.

권상장은 ‘무료’를 표방하였다. 1922년 7월 4일부터 운영된 종로권상장의 ‘여흥’은 매야(每夜) 개최되는 무료여흥임을 홍보하였다. 초창기 권상장 2층에서 상연한 흥행 예제는 공연과 전시가 뒤섞인 불규칙적인 형태였다. 이러한 무료 여흥의 예제는 특성상 빈번히 광고된 편은 아니었다. 실제 운영에서는, 흥행단체가 권상장 2층 공연장을 대여한 경우와 권상장에서 특별히 준비한 전시, 관람의 경우에는 일반 극장 및 흥행장과 비슷한 수준의 관람료를 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품구경은 공짜였으나 여흥은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한강철교에서 잡힌 고래를 전시해놓았다는 기사,³⁴⁾ 1923년 10월 13일 권상장의 연극공연 중 일어난 싸움에 대한 기사³⁵⁾ 등에서 이 같은 초기 권상장의 공연 및 전시활동을 추측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권상장이 위치한 종로 4정목 지역 주변의 공지에서는 가설무대 공연이 활발하였다는 것이다. 종로 4정목은 인근에 배오개시장, 동대문 시탄채소(柴炭菜蔬)시장이 개설되어 있었기에 조선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고설봉의 회고에 의하면 구극연예인들의 가설무대가 보령약국(현 종로 5가 지역) 부근에 있었으며,³⁶⁾ 순회곡마단의 공연 역시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서 벌어진 공연들은 입장료가 저렴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2년 10월 1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권상장 옆 빈

33) 이 밖에 동물원은 대인 10전, 각력(角力)관은 대인 5전, 오락장은 1전이였다(『매일신보』, 1915.9.12).

34) “한강털고 밋해서 뜻있게 고리를 잡아 일반의 인기를 끄는다 흥은 루차 보도한 바어 니와 구경 식히는 날자가 작일로서 쫓을 맞게 되얏는데 시내에서 아즉스지도 구경치 못한 사람이 다슈흔 듯 흥으로 종로 사당목에 굉장한 건물의 주인 즉 권상장(勸商場)에서는 이를 유감으로 싱각하고 슈순회사에 교섭하여 오날부터 그 고리를 사흘 동안 빌니어 권상장 뒤에 있는 공지에서 수산회사에서 구경식하던 것과 갖치 아히는 오전 어른은 십전 각 학교 성도와 밋 그 외 단테관람자에게는 무료로 관람케 하야 도선사람에게 고리에 대한 상식을 엇게 하고자 혼다는데 슈입되는 것은 실비를 제하고 전부 공々사업에 기부한다더라”(『포경관람장소~권상장 안의 고리』, 『매일신보』, 1922.9.23)

35) 『휴지통』, 『동아일보』, 1923.10.15.

36) 고설봉, 『이야기 근대연극사』, 창작마을, 1993, 78~82면.

타'에서 공연하였던 安田(또는 安松)曲馬團의 공연에 대한 신문기사에서는 '동아일보의 후원으로 관람료도 특별히 할함'을 광고하고 있기도 하였다.³⁷⁾ 이 같은 종로 4정목 공연의 지역적 특성 또한 서민적이고 저렴한 오락을 제공하였던 종로 권상장의 특징과 연결된다.

1922년 11월부터 권상장의 광고에는 '종로권상장 오락관(娛樂館)'이라는 명칭이 발견된다. 11월 16일에 '권상장 오락관'의 공연광고에서는 조선청년단(朝鮮靑年團)의 신파극과 함께 '若山耕雲 선생의 대선술(大仙術)'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대선술 시범은 예제로 보아 일종의 차력 시범 및 기합술 강연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극' '희극'의 예제만을 걸어놓고 공연한 조선청년단은 '여흥'을 담당하고 있어서 짤막한 코미디나 신파극의 한 대목을 공연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독특한 점은 종로 권상장 흥행장의 객석에는 대인 30진, 소아 20진, 정모를 쓴 학생과 군인 5진의 등급만을 나누었을 뿐, 1등석과 2등석의 구별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시와 공연 공간으로 사용하였던 2층 연예장의 공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2층에는 고정 객석을 설치할 수 없었으며, 관객들은 간의의자나 바닥에서 공연을 관람하였다.³⁸⁾ 그 외에 권상장에서는 중국인 단체의 흥행도 있었다.³⁹⁾



『동아일보』, 1922.11.16.

37) 「안전극마단 흥행~종로권상장업 빈터에서」, 『동아일보』, 1922.10.11; 「곡마단의 신술」, 『동아일보』, 1922.10.25. 11일 기사에서는 '안전'으로, 25일 기사에서는 '안홍'으로 표기하고 있다. 안송극마단은 개성, 용정 등지를 순회하던 곡마단이다.

38) 고설봉, 앞의 책, 78~7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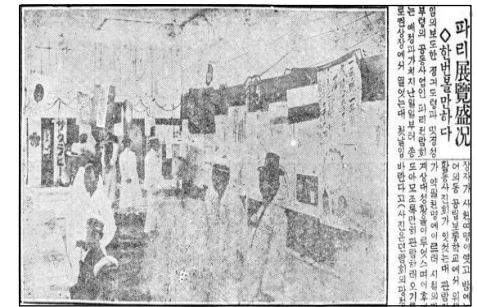
39) “시내 종로통 오정목에 있는 권상장(勸商場) 안에 오래전부터 중국사람들의 연극이

종로 권상장은 관공서가 주최하는 전시회와 행사에 2층 전시공간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1924년 6월 1일부터 1주일간 경성부청과 경기도청이 개최한 '파리전람회'가 대표적이다. “파리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기구와 소독약품을 전시하고 파리 구제에 관한 선전문이 걸렸던⁴⁰⁾ 파리전람회는 첫날 입장자가 4천여 명을 넘는 성황을 이루었다. 위생담론과 관람문화와 결합되어 '파리전람회'가 종로의 조선인들에게 '한번 볼만한' 전시문화로 여겨졌던 근대 초기 식민지 조선의 전시문화의 일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외에 권상장 2층에서 벌어진 전시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애초의 광고와는 달리 권상장은 미술전시회나 전람회의 개최에 별로 열을 올리지는 않았고 2층 공간은 주로 흥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권상장의 흥행은 공연의 질적 완성도보다 다종다양한 레퍼토리가 매야 제공된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상업적 흥행과 무료 여흥이 뒤섞인 종로 권상장은 요컨대 박람회 및 공진회가 보여준 관람 문화의 작은 축소판으로, 박람회장 흥행의 아류를 제공하며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할함' 여흥과 흥행물을 선보였다. 권상장과 종로 4정목의 공연은 전문극단의 수준높은 신파극 대신에 조선청년단의 여흥을, 중앙관(中央館)의 1원 50전짜리 고급 서커스 대신에 安松극마단을, 문명개화의 불거리 대신 고래를, 전시회와 미술전람회의 자리에

상설되어 잇슴은 일반이 모다 아는 바어니와 요사이에 이르러 이와가튼 중국사람 연극단 일행 중에는 재미있는 애화가 한가지 숨어있다.(…후략)” (중국여우 김옥봉, 권상장무대를 떠나 호상과 휴수, 『동아일보』, 1924.11.25)

40) 「파리전람회」, 『동아일보』, 1924.5.5



파리전람회 성황, 『동아일보』, 1924.6.4.

‘파리전람회’를 끼워 넣음으로서 독특한 서민적 여흥의 욕구를 채워나갔던 것이다. 권상장의 매력은 이 같은 ‘대경성 환상’의 중심이었던 박람회 를 연상시키는 오락의 문화체험에 있었다. 권상장의 흥행장과 상점을 향하여 좁은 통로를 통과하던 인파와 북적거림의 기분은 박람회를 걸어갔던 조선인들의 기분과 유사했던 것이라 상상할 수 있다.

나의 鑑識力이 不足한 까닭인지 特産 안인 特産이 만흔 까닭인지 모르지만은 何如間 내 눈에는 하나도 神奇한 것이 업고 어디서 온 百姓인지 “해々 고것 참하다~” 感歎하는 人事의 입이 밋다. 大綱へ 거쳐서 第二號館에 들어가본 즉 亦是나 한 모양이다. 그저 純全한 勸商場이다.

(『陳列大會求景~特産八萬點 舉皆非吾産』, 『동아일보』, 1923.10.26.)

위의 기자(記者)는 진열대회를 구경하며 ‘신기한 것이 없는’ 상품임에도 찬탄하는 조선인을 바라보며 실소하고, 그 풍경을 ‘권상장’에 비유한다. 종로 권상장은 박람회의 문화와 흥행물을 소비하던 조선인 대중에게 각종 흥행 예제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한편으로 종로 권상장은 박람회의 아류적인 여흥거리와 함께 구극(舊劇)과 전통연희를 활발하게 공연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 전반 신과극 공연과 함께 전통예인들의 공연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극장’이자 ‘구극 공연장’, 전시공간으로 사용되던 권상장은 1928년 광무대가 권상장 2층을 빌려 흥행하면서 전통연희 공연을 중심으로 흥행 체제가 재편된다.

4. 구극상설관 전환 : 권상장 광무대 활동과 권상장 연예부(演藝部)의 재담공연

이 장에서는 1920년대 중반 권상장 광무대의 공연활동과 30년 권상장

연예부의 예제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들 공연활동 역시 권상장의 2층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20년대 중반 경성의 공연장에 대한 기사에서 권상장은 “연극을 하는 곳”이며 “구극전문” 공연장으로 언급된다.

활동사진을 돌리는 곳으로는 △ 朝鮮劇場 △ 團成社 △ 優美館 △ 大正館 △ 喜樂館 △ 中央館 △ 黃金館 △ 京龍館이 잇스며 연극을 하는 곳으로는 △ 光武臺 △ 勸商場 △ 文樂座 △ 京○劇場 △ 浪花座 등이 있으며 활동사진촬영소로는 ▲ 白南撮影所 ▲ 東國文化協會 ▲ 早川撮影所가 잇서서 밤마다 밤마다 도시싱에 신음하는 시민에게 위안을 주는 터이니 (...중략...) 구극전문으로 제재로 권상장에서 휴무대⁴¹가 개연을 할 뿐이니 경성의 흥행계는 목하 매오 곤핍한 상태에 썩졌스니 결국 극장을 차져가는 사람의 수에 비하여 극장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후략)

(享樂의 大京城五) ~哀然한 音樂으로 展開되는 視線劇, 『매일신보』, 1925.6.11.)

1920년대 종로 권상장에서는 전통연희 공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종로 권상장의 문화적 위치를 논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극 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이기도 하다. 김재철,⁴¹ 박노홍,⁴² 박진,⁴³ 고설봉⁴⁴ 역시 권상장을 ‘구극 공연장’으로 기록하고 있다.

41) “그러다가 1928년에 광무대는 일본인 다무라 아무개(田村某)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어서 1929년 7월 12일부터 광월단(光月團)이 새로 조직되어 광무대에서 구극을 흥행하였으니, 당시의 배우로는 임명옥 형제가 유명하였다. 그리고 전(前) 광무대 배우들은 다시 권상장 부근으로 옮겨가서 미미한 힘으로 흥행을 계속하였다.” (김재철, 『조선연극사』, 동문선, 2003, 196면)

42) “제일극장~이 극장은 역사가 길다. 1941년 제일극장이라 이름을 고치기 전에는 ‘항좌(港座)’라고 했었다. 지금은 종로 5가이지만 종로 5경목에 있었다. 1921년 이전에는 ‘관상장(觀商場)’이라고 했었다. 원래 1910년대에 동대문시장에서 극장형태로 발족되었다. 광대, 재인, 기녀들의 놀이터였다. 그러한 연예장이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자 항좌라는 극장이 되었다.” (박노홍, 『한국극장사』, 김의경·유인경 편, 『박노홍의 대중연예사 1』, 연극과 인간, 2008, 242면)

43) 박진, 앞의 책, 64~65면.

그렇다면 권상장의 전통연희 공연은 어떠한 방식이었는데? 이를 살펴 보기 위해 우선 권상장이 구극상설관으로 변화한 계기가 되는 1928년의 ‘권상장 광무대’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1928년의 시기 광무대의 운영은 박승배가 주도하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권상장 광무대의 형성 과정을 본(本)광무대(황금정 광무대)와 전(前)광무대(권상장 광무대)의 분열, 박승배가 주도하던 황금정 광무대에서 ‘기존단원들과 신입단원들 사이의 예술상의 견해와 갈등’으로 예인들 일부가 권상장 광무대로 이탈한 과정이라 논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이같은 논의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1927년을 전후한 시점에 박승필은 광무대의 운영권을 박승배에게 넘겨 준다. 박승배는 가무극 중심의 광월단(光月團)을 조직하고 광무대 공연의 레파토리에 서양춤과 곡예, 노래희극 등의 예제를 추가하여 면목을 일신한다. 권상장 광무대는 1928년 8월 15일부터 흥행을 개시한다. 박승배는 권상장 광무대의 조직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28년 8월 22일의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권상장 광무대 공연을 총괄하는 것으로 보도되기 때문이다.⁴⁶⁾ 황금정 광무대의 공연이 “사정을 인하여 휴연”되자 ‘전(前)광무대’는 “권상장을 장기간으로 차득하여 구극상설관으로 장내장외를 일신수리하여” “남녀구극 가무극단을” 조직, 8월 15일부터 흥행할 것을 예고한다.⁴⁷⁾ 아래 기사에는 극장 수리와 극단 조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제시된다.

44) 고설봉, 앞의 책, 78~79면.

45) 유민영, 앞의 책, 109면.

46) “시내 뒤편 오십칠번지 흥업사 박승배(朴承培)는 이십이일 오후 열시경에 종로 사당목 권상장(勸商場)에서 조선가무를 개연 중 화형녀우 김도화(金桃花)(二)가 갑자기 업서짓습으로 가무흥행을 중지하고 갑자기 야단이 나서 각처로 김도화를 수색한 결과 통산에서 개연중인 모좌에 유인된 사실이 발각되어 소관 동대문서에서 사실 도사중이라더라.” (관객내버리고 달아난 여배우, 『동아일보』, 1928.8.25)

47) 「전광무대일행 권상장에서 흥행」, 『동아일보』, 1928.8.12.

시내 황금명(黃金町)에서 흥행하던 전 광무대일행(前光武臺一行)은 이번 에 종로 사당목 권상장(勸商場)을 장기간으로 차득하여 구극상설관을 특설하고 금 십오일부터 데일회 공연을 한다는데 종래 연극에서 재료를 선택해야 참신한 것으로 흥행한다는 바 특히 특별석(特別席)을 맨들고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하며 리련홍(李蓮紅)의 굿놀이 기타 박춘재(朴春裁)의 가무와 기생등의 출연 외에 춘향연의(春香演義) 데일회를 공연한다더라.

(『중외일보』, 1928.8.15.)

권상장 광무대는 ‘특별석을 만들고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공연장을 수리하였다. 언급하였듯 권상장 2층 공연장에는 객석의 등급 구분이 없었는데, 광무대에서 특별석 등의 객석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권상장 광무대의 첫 공연 예제는 이연홍의 굿놀이와 박춘재의 가무, 기생의 출연과 <춘향연의> 제1회였다. <춘향연의>의 공연이 분창을 통해 연극적으로 구성한 구극 형태인지, 판소리의 한 대목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⁴⁸⁾ ‘제1회’라는 명칭에서 <춘향전>을 연속상연물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무대 공연이 ‘명창대회’, 일류명창의 판소리와 신·구잡가 및 가무를 내세운 것과 유사하게 1928년 8월 박승배의 권상장 광무대 공연은 춤과 재담, 굿놀이와 <춘향연의> 공연을 중심예제로 삼아 오락성이 강했던 권상장 공간에 알맞게 구성되었다 할 수 있다.

이어 권상장 광무대에서는 9월 13일 광무대 22주년 기념 공연을 벌인다.⁴⁹⁾ 기존 연구에서는 22주년 기념공연이 황금정 광무대가 아닌 권상장 광무대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근거로 ‘광무대에서 이탈한 전통연희자들이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광무대가 극장 따로 전속단원 따로, 또 건물 따로 정신 따로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논한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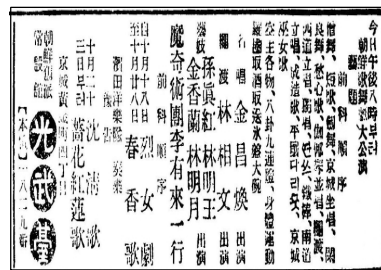
48) 이후의 종로 권상장 연예부(演藝部) 『조선일보』, 1930.3.11~4.1)를 살펴보면 ‘춘향가 一二三回’로 광고하는 것으로 보아서 판소리를 대목별로 나누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49) 『동아일보』, 1928.9.13.

50) 유민영, 앞의 책, 111면.

해석은 1928년의 시점에서 박승배가 권상장 공연 활동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론의 여지가 있다. 권상장에서 공연된 단체가 박승배 주재의 ‘광무대’이기에, 박승필로부터 이어오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22주년 기념 공연을 새롭게 개장한 ‘권상장 광무대’에서 열었다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1928년 10월 황금정 광무대의 경영주는 조병환(趙丙桓)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업저졌든 조선의 가무를 부활시키는 동시에 모든 것을 改新”⁵¹⁾ 하겠다는 조병환의 경영방침은 서양춤, 기계체조, 채플린 패러디, 신파활극, 일본가곡, 평양극, 바이올린 연주 등 신·구, 동서양의 다양한 흥행물을 공연 레퍼토리 안으로 포용하고자 했던 박승배의 공연 기획과는 상반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조병환이 경영주가 된 1928년 10월 이후에도 박승배가 광월단을 중심으로 기획한 신·구 절충식 공연 방침은 관철되고 있었다. 1928년 10월 황금정 광무대에서 공연한 광월단은 서커스단과의 합동공연까지 기획한다.



51) 「경영주 박진 광무대 개신」, 『조선일보』, 1928.10.4. 『한국 근대극장 변천사』(유민영, 앞의 글, 113면)에서는 같은 기사를 ‘1929년 10월 4일’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 선후관계를 정리하자면, ‘박승배의 광무대 경영(1927.4) → 광월단 조직(1927.11) → 황금정 광무대와 권상장 광무대의 분화(1928.8) → 조병환의 황금정 광무대 인수(1928.10) → 광월단, 이유래일행 합동공연(1929.10) → 박승배 취임정지(1929.11) → 황금정 광무대 화재(1930.5.2)가 된다.

오른쪽 광월단 광고 전단지는 배연형 선생이 소장한 자료로 ‘황금정 4정목 광무대’에서 공연하는 광월단의 공연 전단지이고, 왼쪽은 조선일보의 ‘황금정 광무대’ 광고이다.⁵²⁾ 광무대에서 벌어진 이 공연의 주체는 ‘광월단’과 ‘지나 마기술(魔奇術) 이유래(李有來)일행’으로, 광무대와 중국 서커스단의 합동공연이었다. 이유래가 단장이었던 中國大魔奇術曲藝團은 1924년 8월 명치정의 동양척식회사 앞 공터에서 공연하였고,⁵³⁾ 1929년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성 종로 5정목 연지관(蓮池館)에서 공연한 바 있다.⁵⁴⁾ 황금정 광무대~광월단은 명창공연과 창극, 예기 공연과 같은 전통연희 예제에 마술과 검술을 중심으로 공연활동을 벌이던 중국계 서커스단의 예제를 추가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의 오락적인 요소를 강화해 나간 것이다.⁵⁵⁾ 광월단의 활동에서 알 수 있듯, 권상장 광무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박승배가 취한 공연 방침은 황금정 광무대에서 관철되고 있었다. 박승배는 권상장 광무대 경영 이후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1929년 11월에는 ‘취인(取人)정지’를 당하기도 한다.⁵⁶⁾

정리하자면, 권상장 광무대의 형성은 신구 전통예인들의 분열이 아닌 박승배가 ‘광무대’ 단체가 공연할 두 개의 극장 운영을 시도한 것, 또는

52) 배연형, 근대극장 사진 자료 연구(1)~협률사,원각사,광무대, 『한국사상과 문화』 제 30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313~314면. 배연형은 공연 예제와 공연자가 일치함을 들어 이 둘이 같은 공연 자료임을 언급하였다.

53) “시내 명치당(明治町) 동양척식회사업 공지에서 흥행중인 대마기술(大魔奇術)극마단은 런일 대만원을 이루는 중인데 그 중에도 특별히 미인의 가슴에다가 날카로운 톱을 대이고 두토막에 내이는 것은 참아 보기 어려울만치 끔찍하고 신기하다고”(극마단의 상황, 『동아일보』, 1924.8.23)

54) 종로 5정목은 권상장(연지동 소재) 및 동대문시장 근처의 상업지구이다. ‘연지관’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경성 연지관에서 있었던 1929년 11월 20~25일의 내한공연에서는 “단장 이유래(李有來)의 독특한 기술과 곡예술” “극단의 검술의 연기가 더욱 특색”있다고 보도하며 기예와 검으로 벌이는 중국 서커스단의 병기기예를 이채롭게 평가했다(『동아일보』, 1929.11.22).

55) 그러한 공연예제의 교섭에 바로 권상장이 위치하였던 지역(종로 4, 5정목)의 독특한 공연문화의 영향이 자리하였음을 추측할 수도 있다.

56) “취인정지~경성부 입정정 오십칠번지 극장주 박승배”(취인정지, 『동아일보』, 1929.11.13)

황금정 광무대 공연장을 둘러싼 “사정”에 의해 두 공연장을 경영하면서 권상장 광무대로 광무대 공연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박승배가 광월단의 조직을 전후한 시점부터 추진한 신·구 절충의 전통연희 공연방식 역시 권상장 광무대에서 관철되었으리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권상장 광무대는 박승배의 신·구 절충형 예제와 권상장이 추구했던 저렴한 오락과 흥행, 박람회 기분을 제공하는 예목들을 공연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신과극 예제를 전통연희 공연에 추가한 것이다. 1928년 10월 21일부터는 열린 권상장 광무대의 공연은 “조선가무극과 신극을 종전보다 확장하여”⁵⁷⁾ “남도명창 기생 문명화(文明花), 하룡옥(河弄玉), 김계월(金桂月) 세 명을 초빙”하면서 동시에 “김소랑일행에서 분화된 신극배우들의 참신한 신과정희극도” 함께 공연하였다.⁵⁸⁾ 1929년 3월 14일부터 열린 공연에서는 1929년의 조선박람회를 염두한 공연 예제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조선구극으로 참신한 것을 선택”하여 “조선박람회의 예비 공연”을 벌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상장 광무대는 박람회 연예관에 출연할 남녀 배우를 데리고 예비극의 공연을 10전의 저렴한 입장료로 개시하였다.⁵⁹⁾

이 시기 권상장 광무대에서 활발하게 공연하였던 예제로 박춘재 재담을 들 수 있다. 시기적으로 토월회에 관여하며 권상장 공연에 가까이 있었을 박진(1905~1974)은 권상장의 공연 예제 중 박춘재의 재담 공연이 특히 유명하였음을 회고한다.

(권상장은~인용자 주) 기생조합(나중에는 권번이라 했다)의 연습회(요

57) 『권상장의 신구극』, 『동아일보』, 1928.10.24.

58) 『권상장 광무대』, 『중외일보』, 1928.10.23.

59) “경성 종로 사명목 권상장(勸商場) 광무대에서는 금추 박람회 연예관에 출연케 할 남녀 명배우를 지금부터 다려가 준비덕으로 흥행케 되었는데 매야 십전의 관람료로써 지난 십사일 밤부터 시작하였는데 조선구극으로 참신한 것을 선택하였더라” (『권상장에 구극』, 『중외일보』, 1929.3.18)

새말로 하면 가무연구 발표회)도 하고 명창대회라 하여 송만갑, 이동백 등등 명창의 경창대회도 하고 재담, 어릿광대, 줄타기까지 하면서 주로 박춘재(朴春裁) 놀음을 많이 했다. 박춘재는 재담 잘하고 소리 잘하고 장고 잘 치던 재주꾼으로, 한말에는 궁중 출입을 했던 사람인데, 듣기에는 경북 궁 타령을 그가 지었다 하니 요새말로 고쳐하면 유행가의 작사, 작곡가요, 가수요, 코메디언이요, 연주가요, 무용가인 일류 쇼맨이었다.

그가 또 무용가인 이유는, 무대에 장막을 쳐놓고 그 뒤에 누워서 두 발만 내놓고 발가락에 의상을 입혀서 가지각색의 춤을 추는데, 희한하고 기막히고 요절복통에 눈물이 나도록 묘기를 연(演)하던 까닭이다. 과연 당대의 재인이었다. 이런 것을 하는 권상장 안팎에는 사람이 매일밤 구름같이 모여 들었었다. (박진, 앞의 책, 64~6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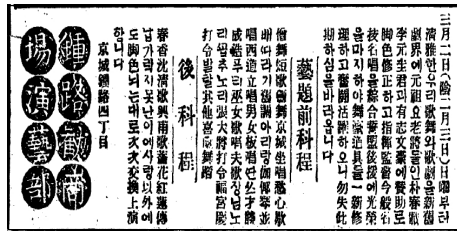
박진은 권상장에서 활발하게 공연되었던 전통연희의 예제로 기생조합 연습회,⁶⁰⁾ 명창대회, ‘박춘재 놀음’을 꼽으며, 그 중에서도 발탈에 대한 인상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권상장 공연의 대표격으로 언급한 ‘박춘재 놀음’이다. 경기명창 박춘재(1883~1950)는 재담과 잡가, 발탈의 달인이었으며, 특히 그의 <장대장(張大將)타령>은 일제강점기에 4번에 걸쳐 음반으로 제작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이같은 박춘재의 재담, 발탈 등의 공연은 가무별감 시기를 거쳐 원각사에서부터 대중에게 선보였다. 1914년 전통예인들이 광무대를 중심으로 재편되자 박춘재는 자연스럽게 광무대를 중심으로 단성사, 연흥사, 장안사 등지에서 공연하며, 혁신팀단의 막간 공연까지 활동의 폭을 넓힌다.⁶¹⁾

재담 공연은 1930년에 이르러 ‘권상장 연예부(演藝部)’의 중심 예제로 부상한다. 1930년에 이르면 종로 권상장의 2층 연예장은 광무대의 소속이 아

60) 1925년 경 기생조합연주회 형태의 공연은 자취를 감추고 있었고(백현미, 『한국창극사 연구』, 태학사, 1997, 162면) 권상장에서 기생조합, 권번의 이름으로 공연된 것으로는 1925년 10월 경 북촌지역 연합경품 대판매 행사의 여흥으로 ‘사권번기생의 출연’ 공연이 있었던 기록만이 남아 있다(『연합매출여흥』, 『동아일보』, 1925.10.28).

61) 손태도, 경기명창 박춘재론, 『한국음반학』 제7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7. 141~142면.

니었는데, 박승배의 경제적 곤란과 연관되어 있으리라 추정된다. 이때부터 2층 공연장의 주관 단체로 ‘종로권상장 연예부’가 등장한다. 연예부의 이름으로 실린 광고에서 권상장의 전통연희



『조선일보』, 193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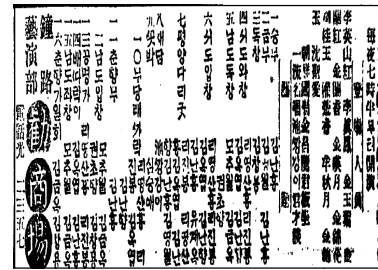
공연 단체는 박춘재와 이원규(李元奎)를 중심으로 조직, ‘유지문호의 찬조’를 얻어 극단의 예제와 무대도구를 일신수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⁶²⁾

1930년 3월 2일 권상장 광고에 흥행예제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창부가, 장님노리, 솥추노리, 장대장타령, 경복궁타령, 발탈”⁶³⁾은 바로 박춘재의 공연 레파토리아이다. 박춘재의 재담과 잡가는 1910년대부터 이미 전통연희 공연에서 인기있는 예제로 각광받고 있었으며, 1911년과 13년에는 일축에서 유성기음반으로 녹음된 바 있기도 하다. 이 중에서도 <장대장타령>, <개넛두리>, <맹인흥내>, <각색 장사치 흥내> 등은 이미 1911년과 13년 초기 녹음부터 포함될 정도로 인기 있는 재담이었다. 박춘재는 경기명창의 가곡, 시조, 가사, 잡가를 두루 아우르는 폭넓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장기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재담이 대중들에게 각광받는 예제로 부상하였던 것이다.⁶⁴⁾ 1, 2인 공연자를 중심으로 벌이는 재담 공연은 특별한 무대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락성이 강한 인기 예제였기에 권상장 2층 무대에 적합한 공연 양식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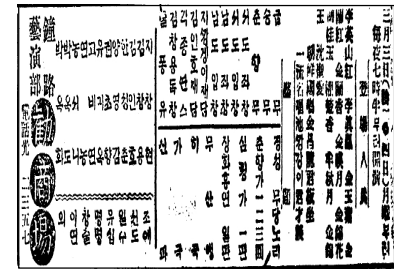
62) 1930년 3월 14일에는 송갑수(宋甲洙)가 1만원의 기본금을 적립하여 “구극계에 경험만 코 수완있는 동지 몇 사람과 공동하여” 조선구극 갑예사(甲藝舍)를 조직한다. 3월 15일부터 권상장에서 공연하였던 갑예사의 공연은 “구극남녀배우 이외 각 권번명창 예기들도 출연공개”하는 무대였는데(『구극 갑예사』, 『동아일보』, 1930.3.16) 이 갑예사 공연과 박춘재, 이원규 중심의 ‘종로권상장 연예부’공연이 어떠한 관계였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63) 『종로 권상장 연예부(광고)』, 『조선일보』, 1930.3.2.

64) 손태도, 앞의 글, 176~177면.



『조선일보』, 1930.3.5.



『조선일보』, 1930.3.11.

특기할 만한 사실은 ‘박춘재’로 대표되었던 재담 공연이 1930년 권상장 연예부 공연에 이르면 ‘재담’이라는 예제를 내세우며 박춘재 이외의 재담꾼들이 등장하여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권상장 광무대 이후 박춘재는 종로 4정목 지역의 가설무대 공연을 거쳐 1930년 경 만리동 흥룡극장(興龍劇場)을 중심으로 ‘박춘재 일행’의 이름을 건 전통연희 공연을 지속하지만,⁶⁵⁾ 1930년 이후 박춘재의 공연 기록은 이전 시기에 비해 그리 빈번하게 보이지 않는다.⁶⁶⁾

1930년 3월 5일 이후 ‘종로권상장 연예부’의 공연 예제에서는 박춘재의 재담 공연이 사라지고 이 자리에 ‘지(池)쌍강이’⁶⁷⁾이라는 새로운 재담꾼이 등장한다. 광고에서는 “조선국창 김창룡군 坂坐”와 “일류명창 지(池)쌍강이군 才談”이 비중있게 제시되어 있었으며, 승무의 김난홍, 공명가의 김영산홍(金英山紅) 등의 예인이 참여하고 있었다.⁶⁸⁾ 1930년 3월부터 4월까지의 종로 권상장의 예제를 살펴보면, 무당놀이나 잡가, 판소리, 전통무

65) 위의 글, 153면; 고설봉, 앞의 글, 79면.

66) 반재식이 작성한 ‘박춘재 연보’에서는 1930년 이후의 시기를 “신병으로 은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반재식, 『재담 천년사』, 백중당, 2000, 371면).

67) 『조선일보』 권상장 연예부 광고에 제시된 사항을 종합하면 ‘지쌍강이’의 본명은 지창현으로 추정된다. ‘지쌍강이’, 또는 지창현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없으나, 광고에 나타난 예인 명단 순서에 비추어 명창 김창룡(金昌龍, 1872~1943)보다 연배가 위었던 전통예인으로 추정된다.

68) 『종로 권상장 연예부(광고)』, 『조선일보』, 1930.3.5~8.

용(승무, 춘향무 등) 등의 전통공연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줄풍류나 신파, 희극 등의 예제가 보이고 있으나, 권상장 광무대 시절만큼의 신·구절충식 무대나 여타 흥행단체와의 연합공연은 없었다. 이 시기 권상장 공연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은 재담으로 보인다.

‘지쌍갱이’와 함께 김인호(金仁鎬) 역시 재담꾼으로 종로 권상장 연예부 공연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3월 11일 『조선일보』의 광고에는 “지쌍갱이 재담”과 함께 “김인호 재담”이 비중있게 소개되고 있다. 김인호는 1914년 광무대에서 시작하여 주로 웃음거리, 탈놀이 등을 예제로 삼았으며⁶⁹⁾ 박승배가 주관한 황금정 광무대에서는 “익살 잘치는 김인호군”⁷⁰⁾으로 소개되며 재담 공연을 하였다. 이는 박춘재 이외의 재담꾼들이 등장하며, ‘재담’ 공연이 하나의 공연물로 형성되었으며, 권상장과 같은 흥행장 공연활동에서 확고한 인기 레파토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댄스홀과 미인가’, 권상장의 확장과 1930년대

1930년, 종로 권상장은 ‘수천 평’의 확장공사를 통해 57개의 점포, 극장, 유원지, 미인가(美人街) 등이 설비된 시설로 개축된다. 수천 평 확장공사의 핵심은 권상장 뒤편 공지에 극장(미나도좌(港座))을 건설하고 2층 800여 평을 댄스홀로 만들며, 카페 아홉 곳이 늘어선 미인가(美人街)를 조성하고 각종 흥행을 할 수 있는 유원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⁷¹⁾ 대경성 환

69)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상)』, 보고서, 2012, 370면. 김인호는 1915년 2월에는 평양 부 기생학교의 하나로 ‘김인호학교’를 설립하고, 1915년 3월에는 경성구파배우조합의 부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70) 『동아일보』, 1927.1.5.

71) 『‘댄스홀’과 미인가~신명소리는 권상장 경영법』, 『조선일보』, 1930.8.6.

상, 값싼 오락물, 박람회 의 기분을 조성하였던 “경성 낙천지” 권상장은 백화점식 대점포 상점의 발달과 ‘에로의 북진(北進)⁷²⁾ 앞에서 다시 한 번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권공장(勸工場)을 모델로 한 권상장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짧은 인기를 누린 서민적 흥행문화의 일단을 구성하였고, 권상장 광무대와 같은 신·구 절충식 공연과 재담 공연의 인기를 가능케 한 공간이었다. 바로 이같은 식민지 경성의 서민적 대중문화, 관람과 값싼 오락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던 권상장과 종로 4정목이라는 도시공간의 탄생은 재담이나 판소리 등 전통연희의 예제와 근대적 전시문화, 상품 구경과 가벼운 여흥이 뒤섞인 20년대 도시의 여가, 오락문화의 풍경을 보여준다.

권상장의 뒤편에 세워진 미나도좌(제일극장)는 박승희의 태양극단 공연과,⁷³⁾ <탄갱부(炭坑夫)>, <하차(荷車)> 등의 진보적 연극을 공연하였던 극장이며, 30년대 이후로는 영화 재개봉관으로 생존하였다. 종로권상장 경영자 滄谷은 이후 조선극장을 인수하였으나(1934.12) 1936년 6월 13일 조선극장은 방화로 전소되고 만다. 1935년 3월 23일에는 제일극장(미나도좌의 후신)이 영화상영 중 화재로 전소되었으니 그는 화재로 극장 2개를 잃은 특이한 경력을 지닌 셈이다. 경성의 이류 극장이자 유흥 공간으로서 1930년 이후의 권상장과 미나도좌에 대한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朝鮮及滿洲』 『동명』 『삼천리』

72) “에로의 북진 : 에로의 신전 카페~가 점점 북촌으로 올라온다. (...중략...) 그 밖에 미나도요 파라다이스요 모다 탐골공원을 중심삼고 북촌 진출에 여념이 없다.” (『서울 때 까메 룡』, 『삼천리』 3권 9호, 1931.9)

73) 박진, 앞의 글, 65면.

2. 단행본

김병도·주영혁, 『한국 백화점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10.
 김재철, 『조선연극사』, 동문선, 2003.
 데이비드 하비, 김병화 역, 『파리 모더니티』, 생각의 나무, 2010.
 문경연, 『한국 근대 극장예술과 취미 담론』, 소명출판, 2012.
 박노홍, 김의경·유인경 편, 『박노홍의 대중연예사 1』, 연극과 인간, 2008.
 박진, 『세세년년』, 세손출판회사, 1991.
 반재식, 『재담 천년사』, 백중당, 2000.
 백현미, 『한국창극사연구』, 태학사, 1997.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 일지사, 1996.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상)』, 보고사, 2012.
 어효선, 『내가 자란 서울 : 1930년대 서울 살림 엮보기』, 대원사, 2011.
 우수진, 『한국 근대연극의 형성』, 푸른사상, 2011.
 유민영, 『한국 근대극장 변천사』, 태학사, 1998.
 야마구치 마사오, 오정환 역, 『패자의 정신사』, 한길사, 2005.
 하쓰다 토오루, 이태문 역, 『백화점: 도시문화의 근대』, 논형, 2003.
 靑柳綱太郎, 『大京城』, 朝鮮研究會, 1925.

3. 논문

김려실, 『일제시기 영화제도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제41호, 한국영화학회, 2009.
 김백영, 『1920년대 ‘대경성(大京城)계획’을 둘러싼 식민권력의 균열과 갈등』,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김은진, 『1917~1940년 종로 상업사회의 공간구조』, 『한국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문경연, 『한국 근대연극 형성과정의 풍속통제와 오락담론 고찰』, 『국어국문학』 제151호, 국어국문학회, 2009.
 배연형, 『근대극장 사진 자료 연구(1)~협률사,원각사,광무대』, 『한국사상과 문화』 제30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백두산, 『윤백남 희곡 연구~ 대중문예운동과의 관련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7.

백현미, 『소녀 연예인과 소녀가극 취미』, 『한국극예술연구』 제3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2.
 손정목, 『II. 개항기·일제하의 산업·경제』, 종로구 편, 『鐘路區誌(下)』, 1994.
 손태도, 『경기명창 박춘재론』, 『한국음반학』 제7호, 한국고음반연구회, 1997.
 심경미, 『20세기 종로의 도시계획과 도시조직 변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 석사학위논문, 2009.
 유민영, 『근대극악의 요람 광무대연구』, 『한국연극연구』 1, 국학자료원, 1998.
 이규복·김한배, 『서울 도시경관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학연구』 제2호, 서울학연구소, 1994.
 이승희, 『조선극장의 스캔들과 극장의 정치경제학』, 『대동문화연구』 제7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_____, 『세금으로 본 흥행시장의 동태론』, 박현호 편, 『한국의 근대, 문화장의 동역학』, 소명출판, 2013.
 이용남, 『해방전 조선영화 극장사 고찰』,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01.
 이주영, 『광무대 연구』, 『한국연극학』 제48호, 한국연극학회, 2012.
 이호길, 『식민지 조선의 문화사업, 극장업』,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전우용, 『근대 종로의 상가와 상인』, 서울학연구소, 『종로: 시간, 장소, 사람』, 2002.
 조병로, 『식민지시기 도로정책과 재조일본인의 대응』, 조병로 외, 『조선총독부의 교통정책과 도로건설』, 국학자료원, 2011.
 한상언, 『활동사진시기 조선영화산업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0.
 _____, 『1910년대 경성의 극장과 극장문화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제53호, 한국영화학회, 2012.
 홍선영, 『1910년 전후 서울에서 활동한 일본인 연극과 극장』, 『일본학보』 제56호, 한국일본학회, 2003.
 _____, 『경성의 일본인 극장 변천사』, 『일본문화학보』 제43권, 한국일본문화학회, 2009.
 허영란, 『일제시기 서울의 ‘생활권적 상업’과 소비』,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5.

Abstract

植民地朝鮮の商業・娯楽スペース、“鍾路勸商場”の研究

: 1920年代を中心として

A study on the Jongno-Kwonsangjang, commercial & amusement complex in Chosun colonial period

: Focused on 1920's

白斗山

Back, Doo-san

この研究は植民地時代、首都京城の鐘路4丁目にあった商業・娯楽スペース“鍾路勸商場”における公演文化を調べ、1920年代の博覧会文化の拡散と共に勸商場で行われた庶民的な娯楽の形態を見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1922年に建設された鍾路勸商場は、1920年代の“大京城計画”と鍾路地域を中心とした京城市街整備事業及び日本の勸工場文化を背景として建設された。北村(ブクチョン)開発計画と地価の上昇がもとで日本人の資本が北村に進出していた時期に建設された鍾路勸商場は、明治後期日本の博覧会と連携し文化的な‘遊覧’や‘人ごみを突き抜けていく’体験を提供していた都市住民の文化空間‘勸工場’をモデルとした。

鍾路勸商場は1915年の朝鮮物産共進会や鍾路夜市における‘観覧/ウォーキング’の文化的な欲求をさらに刺激し、夜市エリアを勸商場内に拡大させ建物や街路の照明設備設置へとつながった。鍾路4丁目は東大門市場などの商業施設が背景にあり朝鮮人の流動人口が多い地域であった為、サーカス団や朝鮮舊劇団体などの安い仮設舞台の公演が頻繁に行われ

た。勸商場もオープンした当初から“余興観覧料無料”を掲げ映画や演劇にお金を使うことをためらっていた観客達に安い余興公演を提供した。初期の“勸商場芸能部”では新劇や妓生公演、クジラの展示、大仙術公演など多種多様なレパートリーを披露したが、勸商場の魅力は‘大京城幻想’の中心であった博覧会を連想させる娯楽の文化的体験にあった。

1928年、朴承培(パク・スンヘ)の‘光武臺(クァムテ)’が勸商場2階会場を借りて“勸商場光舞台”として公演をしながら、鍾路勸商場は朝鮮舊劇専用常設館に変わっていく。勸商場光武台は新派劇合同公演、朝鮮博覧会の予備公演など新旧折衷型の演目を通して、勸商場の空間における特化された安価な娯楽興行、博覧会的な気分を提供する公演を披露した。この時期に勸商場で人気を博した公演に朴春載(パク・チュンジェ)の公演がある。‘才談’の公演は1930年までには“勸商場芸能部”の中心的な演目になるが、朴春載のほかジ・カンカンイ、金仁鎬(キム・インホ)などの才談家が当時広告の前面を占めており、才談の興行公演が定着するプロセスを示している。勸商場と鍾路4丁目のような都市空間の誕生は、才談やパンソリなどの伝統演劇の演目と近代的な展示文化、商品の見物と軽い余興が織交ざった20年代の都市におけるレジャー、娯楽文化の風景を示す。

Key words: Kwonsangjang, Gankouba(勸工場), Jongno, Bukchon(北村), Great Keijo(大京城), Jongno night market(鍾路夜市), Gongjinhoe, Joseon Exposition, 1920's, Kwangmudae, Park Seungbae, Park Chunjae, Kim Inho, Jaedam(才談)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기간: 2013년 11월 11일~12월 7일
게재결정: 2013년 12월 7일